



제목	The Mythology of All Rac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Kessinger Publishing
발행일	2010. 9. 10.
저자	Arthur Berriedale Keith Albert Joseph Carnoy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594
ISBN 또는 ISSN	978-1166068202

**내용 요약**

인류 최초의 신화로 볼 수 있는 수메르 신화부터 그리스와 로마 신화, 게르만과 켈트 신화, 그리고 페르시아와 아랍 신화 등, 신화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맹공격을 받아 사라져 버린 신화도 있는데, 그 경우 신화는 민간 신앙이나 민담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도 신화의 경우, 특히 인도 남부 지역에서 신화가 기독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슬람이 영토 확장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인도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이 인도 북서쪽으로 쳐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남쪽 지역의 신화와 종교가 영원히 건재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러한 믿음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인간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계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독특한 유산 덕분에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과거 조상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한다.

신화의 층위가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신화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신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어렵다. 더욱이 인도의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신화와 전통의 저장고를 일일이 다 열어보기란 불가능한데, 인도 신화와 전통의 대표적인 저장고로서 베다(Veda), 서사시(epics), 파라나(Paranas), 그리고 불교 관련 각종 문헌은 각각 풍성한 자료를 제공한다.